

## 레바논에서 발견한 '나'

- 이름 : 김정훈
- 근무기구 및 부서 : UNIFIL(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동명부대 작전과
- 직위/직급 : 아랍어통역병
- 지원 경로 : 육군 동명부대 파병 선발계획 공고
- 근무 기간 : 2019.4.16. ~ 2019.12.12.

### 레바논 파병, 꿈이 현실이 되다

작년 이맘때 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8개월간의 파병생활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일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작전을 나갔던 마을의 골목길 풍경이 눈에 선하고 부대를 찾아오던 레바논 현지인들의 아랍어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답던 석양도 몹시 그립다. 레바논이라는 먼 곳에서 군 생활을 하기까지 모호했지만 나는 내 꿈을 다듬고 '나' 라는 화살을 날카롭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나만의 특별한 과녁을 찾고 있었다

### '나'를 알기 위해 달려온 지난 날들

고등학교 시절, 국제기구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수많은 모의유엔대회에 참석하며 활발한 대외활동을 했던 나는 현재 대학에서 두 가지 전공(국제통상학, 아랍어)을 공부하고 있다. 국제통상학과에서는 경제학과 국제법을, 아랍어과에서는 아랍어와 중동지역학을 공부하고 있다. 학교에서 전공 공부를 즐겁게 하면서도 저학년 때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외교부가 주관하는 한·중·일 청년모의정상회담의 대학생 대표로 선발되어 중국에 가서 중국, 일본 학생들과 밤샘 토론을 하고, 여성가족부 주관 국가간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대표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현지 청년들과 교류도 하였다. 입대 직전에는 국가보훈처가 선발한 대학생 대표로 네덜란드를 방문해 6. 25.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현재학생들과 교류하는 활동도 했다. 그 외에도 자유무역, 비핵화 문제를 다룬 대학생 모의유엔, 평창올림픽 언어서비스팀, NGO 기자단, 정부기관 인턴까지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 답을 정확히 찾지 못한 채로 입대를 하였고, 동명부대 파병 경험을 통해 나는 나를 알게 된 동시에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더욱 확실하게 가지게 되었다.

### 파병 지원,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닌 내가 찾는 것

대학교 2학년 시절 나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과제인 '군대'를 해결해야 했고, 이 과제를 평범하게 해결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찾은 것이 아랍어 어학병 지원이었다. 육군에서는 해마다 통역 및 번역 시험으로 소수의 아랍어 어학병을 선발한다. 내가 응시했던 2018년에는 3회의 시험이 있었고, 한 번에 한두 명을 선발했다. 처음에는 정말 바늘구멍처럼 느껴졌지만, 누군가는 그 시험에 불기에 그 사람이 내가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8개월 정도 그 시험에 맞춰서 공부했다. 두 번의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결과, 그렇게도 바라던 아랍어 어학병으로 입대하게 되었다.

꿈에 그리던 아랍어 어학병으로 입대를 해서 아랍어 번역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아랍어

를 계속 사용하면서 나의 어학 실력은 향상되었다. 아울러, 우리 부대는 어학병들의 집합소였기에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과 생활하며 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군생활을 하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공고를 접하게 되었다. UN 소속으로, 그것도 아랍어 통역병으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상부의 추천서가 필요했고, 바로 전 해에는 우리 부대 내 인력 부족 문제로 아랍어 어학병의 파병 지원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했다.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허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공고가 뜬 기간 동안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다.

마감 사흘을 앞두고, 나는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닌 내가 찾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에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왜 파병을 가고 싶은지, 걱정되는 인력 부족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파병 후 자대에 복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상세하게 써서 분대장, 소대장, 대장님 순으로 전달했다. 대장님이 나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추천서를 작성해 주셔서 파병 지원을 할 수 있었다. 나의 진심과 간절함이 전달되어 꿈이 이루어진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모든 서류를 시간 안에 갖춰서 우편으로 보내고, 레바논 현지 부대와의 전화 통역 시험을 거쳐 합격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출하는 날에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아쉬워, 같은 부대 사람들 50명 모두에게 편지를 전하고 나왔다.

### 레바논으로 가기까지

나는 7주 동안 ‘국제평화지원단’이라는 특전부대에서 PKO교육을 받았다. 기존 부대보다 체력 훈련도 늘어나고, 교육기간 동안 준비할 것들도 많아 정신없이 그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 와중에도 너무나도 설레었다. UN 평화유지군의 신분으로 아랍어라는 내가 가진 조그마한 재능을 활용해 먼 타지로 간다는 것이 너무 기대되었고 현실이 아닌 것만 같았다. 마침내 레바논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 긴 비행 끝에 눈 앞에 펼쳐진 낮선 풍경을 마주하고서야 파병을 실감할 수 있었다.

### UNIFIL과 레바논에서의 평화

동명부대는 UNIFIL의 예하부대로 레바논 남부 다섯 마을을 관할한다. 처음 부대에 도착했을 때, 레바논의 붉디붉은 아름다운 저녁노을과 파란 하늘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현지 상황도 조용해서 내가 평화를 지키러 온 것이 아닌, 평화 속에 있기 위해 레바논에 온 듯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평화 그 자체였던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에서 UNIFIL 작전지역으로 포탄이 날아온 사건으로 모두 놀란 경험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존재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작전에 임했다.

### 아랍어 통역병의 주요 업무

세 명의 아랍어 통역병이 있었던 21진과 다르게 내가 속했던 22진에는 아랍어 통역병이 둘만 있었기에, 감당해야 했던 업무의 강도는 높았지만, 그만큼 더 많이 배우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아래는 나의 주 업무였다.

- 1) 대민의료지원 통역

동명부대가 현지인들에게 가장 찬사를 받는 작전은 대민의료지원작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명부대의 작전지역에 다섯 개 마을이 있고, 군의관, 간호장교, 약제병, 아랍어통역병, 그리고 현지통역(영어-아랍어)인이 한 팀이 되어 매일 다른 마을에서 무상으로 현지 민간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는 약제병과 함께 약제병이 배분하는 약품에 대한 설명과 문의사항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했고 나에게는 가장 보람찬 일이었다. 진료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약을 받아 나가는데, 약제병의 말을 내가 통역하고 환자를 보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은 내가 들었다. 내가 그들의 언어를 할 수 있기에 그들은 항상 나에게 감사를 표했고, 민망하면서도 나 또한 그들에게 감사한 순간들이 많았다.

## 2) 마켓워크(Market Walks) 작전

우리가 관할하는 마을의 시장이나 상점을 방문하면서, 민간인들에게 UN 부대가 주둔하기에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특이사항이 없는지 살피는 작전이다. 돌아와서는 UN 양식에 맞춰진 영문보고서를 작성해 UNIFIL 상부에 제출했다. 동명부대 내에서 하나의 작전에 5명에서 8명의 인원이 참여하였지만, 아랍어통역병 한 명은 통역을 위해 항상 참여해야 했다.

하루는 ‘부르글리아’라는 마을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마을을 돌아다니던 중 한 현지 할머니께서 집에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라며 우리를 집으로 초대해주셨다. 20분 정도 앉아있었지만, 그 할머니가 하시던 감사의 말을 우리 말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그 가족분들에게 아랍어로 전하면서 뿌듯했다. 후에 단장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그 집으로 따로 찾아가 선물을 전달하고, 우리 부대원들에게 손수 차를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인사를 드렸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군사외교관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 3) 특공무술 훈련 통역

동명부대 구성원의 반은 특전사 분들이다. 모두 특공무술에 능했는데, 내가 속했던 22진부터 새로운 작전을 진행했다. 레바논군에게 우리나라의 특공무술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레바논군 부대 두 곳에서 번갈아 가면서 매주 진행이 되었고 나는 통역을 위해 매년 참석했다. 40도 가까운 날씨에 야외에서 4시간 동안 몸으로 움직이는 작전이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힘들었지만, 내 역할이 정말 중요했다. 다른 작전도 마찬가지로, 먼 타지에서 온 동양인 남자애가 아랍어를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 신기했는지 쉬는 시간이면 나를 둘러싸고 쉬지 않고 질문을 쏟아냈다. 같이 작전을 수행했던 특전사들에 대해 궁금한 것, 우리가 레바논군에게 궁금했던 것도 서로 이야기하며 우리는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다.

## 4) 레바논군과의 연합 경찰 작전

일반적으로는 우리 관할지역을 동명부대 특전사들이 나가서 경찰이지만, 레바논군과 연합으로 경찰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탄자니아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작전 전 사전 회의와 여러 상황을 대비해 통역병이 필요했다. 다른 작전과 다르게 총기에 탄알집을 결합하고 다른 특전사들과 동일하게 경찰작전에 투입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되는 작전이었다. 무엇보다 작전 시간이 불규칙해 새벽에 투입되어 아침에 돌아오는 작전도 많아 체력소모가 심했다. 그렇지만, PKO 활동의 가장 핵심 축이 되는 작전에 투입되어 활동했기에 그 의미가 남달랐고 지금도 새벽에 내려다보던 마을의 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

## 5) 기타

앞서 언급한 작전들이 규칙적인 업무였다면, 이 외에도 작전병으로 상황근무에 투입되어 UNIFIL 본부와 소통 업무, 동명부대 내 고용된 현지인들과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의 통역, UNIFIL 주관 교육이 있으면 영어 통역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 파병생활을 통해 얻은 것

### 1) 어렵(難)어에서 애(愛)랍어로

아랍어는 나에게 애증의 언어이다. 아랍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기회를 얻기도 했지만, 아랍어는 너무 어려운 언어이다. 내 나름대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A+를 받지 않은 과목이 없을 정도였지만, 지금도 어렵다. 아랍어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푸스하’라고 하는 표준어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쓰는 ‘암미야’라고 하는 방언의 갭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나 또한 학교 공부와 어학병을 준비하면서도 표준어 공부에만 몰두했고, 파병을 가기 전 부대에서는 기사를 주로 보았기 때문에 ‘암미야’를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 앞서 언급한 활동들에 있어 아무 문제 없이 작전을 수행한 것 같지만, 처음에는 레바논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스스로가 무능력하다는 생각에 빠져 우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인 인사, 숫자 읽는 방식부터 다른 레바논 방언을 습득하기 위해 개인 정비 시간의 상당 부분을 공부에 할애했다.

우선, 레바논 방언 서적을 찾아 아마존 도서 사이트에 수없이 접속했다. 군부대이고 레바논에 있다 보니 책 배송이 어려워 전자책(E-book)을 구입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부대 내 사이버지식정보방에 가서 공부했다. 밤 12시까지 연등을 하는 날도 많았고, 내가 들고 간 플래너는 매일 일정이 꽉 찼다.

그렇지만, 나 혼자 공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운이 좋게도, 우리 부대 내 현지통역인(영어-아랍어) 중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 매일 점심시간마다 툼툼이 부대 내 그의 사무실에서 언어 교환을 했다. 하루는 내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하루는 내가 아랍어를 배우면서 실력이 많이 늘었고, 파병 기간 중반부터는 대부분의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큰 무리가 없었다.

전역을 하고 학교에 복학한 지금, 아랍어과에서 수업을 들으면 교수님들이 어디에서 유학을 다녀와 그렇게 늘었냐고 물어보시면 내심 뿌듯하다.

### 2) 미래 고민의 도착점

PKO 활동 막바지에, 레바논의 경제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고정환율이었던 달러-리라 환율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레바논은 예정된 유로본드(Eurobond) 채무상환이 어렵다며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최악의 경제상황이 현지인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 레바논 곳곳에서 정부를 향한 시위가 일어나고, 파병 말기에는 작전을 나가면 사람들의 눈에 생기가 없었다. 대민의료지원 작전 중 아이 해열제가 없어 두 시간을 걸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종일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UNIFIL은 이에 대해 전혀 개입할 수 없었고, 작전과 시위가 부딪히지 않기 위해 조율하는 것,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다였다. 답답했지만 그게 현실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진로 고민의 도착점에 다다랐다. 학부에서 전공하는 경제학과 국제법, 그리고 중동 지역학이 너무 재미있었기에 이를 대학원에서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졌고, 이후에 중동 경제 전문가로 국제기구에서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지 인들과 교류하면서 이들의 삶에 조그만 보탬이 되는 것에 항상 보람을 느꼈고, 이를 더 큰 무대에서 실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마무리하며

군생활을 레바논에서 했다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하지 않았냐?”고 질문한다. 당연히 안전한 곳은 아니고, 그렇기에 UNIFIL이 활동하는 것이다. 부모님도 내가 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까지 마음을 졸이셨다고 한다. 그렇지만, 세상에 리스크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그 리스크가 클수록 돌아오는 보상은 크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들게 얻은 기회였기에 리스크를 생각하지도 않고 갔지만, 돌이켜보면 내 스스로가 참 용감했다는 생각도 든다.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운 아랍어와 마침내 찾게 된 나의 진로, 그것은 돈으로 결코 환산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었다. 이와 같은 나의 경험담이 국제기구 혹은 파병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끝/

<별첨>



부르글리아 마을에서 대민의료지원 작전을 마친 후



Market Walks 중 우리를 집으로 초대해주신 분들



특공무술 훈련을 마치고 레바논군과 함께!



Market Walks 교육 수료 후 타국 예하부대원들과 함께



UN 메달을 받은 후 파병 동기들과 함께



‘이달의 동명인’으로 선정된 나